

노 주 환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선의 중첩에 의한 형상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김 도 훈

선의 중첩에 의한 형상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노 주 환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2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김 도 훈

인 준 서

김도훈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본인은 멸종 위기에 놓인 다양한 동물들을 현대적 재료를 이용해 제작하여 그들이 처한 위태로운 상황을 표현함과 동시에, 자연의 조형미를 스테인리스의 성질과 특이점을 이용해 재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현대적 재료와 멸종위기 동물 사이의 괴리감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병행하였다. 이는 자연적 소재를 채택하여 현대적 재료로 제작함으로써, 문명의 이기와 원시적 생명력 사이의 대립적 관계를 역설적으로 해소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본인은 얇은 스테인리스 선(線)을 이용하여 3차원 공간에 드로잉을 하듯 작품을 제작하였으며, 중첩된 선이 형성하는 분절된 표면을 통해 스테인리스 특유의 반사면을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씨줄과 날줄처럼 얽혀 직조된 금속성의 면은 독특한 입체감을 나타내어, 중량감이 강하게 느껴지는 일반적인 양감과 차별되는 독자적인 양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총 3장의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제 1장 서론은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들을 주제로 선택하게 된 동기, 작품의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에 대한 개괄적인 서술로 이루어져 있다.

제 2장 본론에서는 본인이 추구하는 입체와 공간의 상호공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방법을 제시하고, 더불어 각각의 연구 작품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통해 제작 의도와 기법을 상세히 서술하여 본인의 연구 내용을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제 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본 연구의 개선해야 할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의 작업 진행 방향에 대한 연구 의지를 밝혔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II. 본 론	3
1. 작품의 형성 배경	3
1) 멸종위기 동물의 불안한 존재감	3
2) 유기적 관계	5
2. 작품의 조형적 특징	7
1) 중첩된 선들의 조형적 특성	7
2) 공간 분할에 의한 빛의 반사	10
3) 불확실한 이미지	11
3. 작품분석	13
III. 결 론	25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작품 1】 lizard	13
【 작품 2】 polar bear	15
【 작품 3】 deer	17
【 작품 4】 sika deer	19
【 작품 5】 face I	21
【 작품 6】 face II	23

I. 서론

조각이란 말 그대로 ‘깎아서 형태를 만든다’ 라는 뜻을 함의하고 있다. 더불어 조소(彫塑)라는 용어는 조각과 소조의 합성어로서, 깎거나 붙여서 형태를 드러내는 행위를 일컫는다. 그러나 반대되는 듯 보이는 두 행위는 모두 특정한 부피와 양의 존재를 공통적인 소재로 공유하고 있으며, 무엇을 깎고 무엇을 붙이든 그것은 볼륨(volume) - 즉 덩어리로서 존재한다. 완성된 조각 작품은 물론이거니와 제작과정과 재료적 속성 전반에 걸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입체감은, 그 확고한 존재감과 공간 점유적 속성으로 말미암아 보는 이로 하여금 경탄과 두려움을 동시에 유발한다. 작품의 밀도와 완성도가 치밀해질수록, 혹은 그 크기와 규모가 거대해질수록 관객은 압도됨과 동시에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다. 특히 재현적인 성격이 강한 구상 조각 앞에서 이러한 현상을 흔히 겪게 되는데, 이것은 미메시스¹⁾에 불과한 물체에 의해 경도되어 버린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느끼는 곤혹스러움과도 관련이 있다.²⁾

입체 예술로서의 조각 작품이 갖고 있는 이러한 속성과 메커니즘에 대한 본인의 회의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본인은 볼륨과 매스를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인 조각재료 대신 선(線)적인 재료를 통한 입체의 구현을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본인은 공간을 입체에 의해 점유되어야 할 점령지가 아니라 입체적인 드로잉에 의해 재구성되는 곳으로 재인식하고자 하였으며, 이것은 선과 여백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적 미학과도 연관이 있다. 더불어 씨

1) Mimesis : 모방이라는 뜻. 플라톤은 감성계의 개별적 사물은 참된 실재인 이데아의 모방이라고 하고 이데아보다 낮은 차원으로 생각하였다.

2) Werner Jung, 미메시스에서 시뮬라시옹까지, 장희창 역 (부산: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6), 48p

줄과 날줄처럼 엮이는 선들을 통하여 중첩된 면이 형성하는 독특한 입체감을 구현하고, 주변을 반사하는 각각의 선들이 구성하는 독자적인 양감을 통해 재료의 물성과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본인의 생각을 토대로 제작한 작품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동물이라는 소재를 택하게 된 배경적 설명과 함께 자연과 생명에 대한 표현의 시도를 시작으로 하여,

둘째, 선적 요소로 구성된 입체의 특이성과 스테인리스 스틸의 재료적 특성을 이용하여 표현한 작품과 공간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셋째, 본인의 연구 작품들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과 요소를 확인하고 나아가 개진해 나아가 할 방향을 모색하였다.

II. 본 론

1. 작품의 형성 배경

1) 멸종위기 동물의 불안한 존재감

평소 동물을 좋아하는 본인은 현재도 7마리의 고양이를 키우고 있으며 그 중 5마리는 최근에 본인의 손으로 받아낸 새끼 고양이이다. 경이로운 탄생의 순간을 경험한 본인은 생명의 근원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다. 또한 한 개체로서의 생명도 이렇게 소중할진데, 하나의 종(種)이 사라진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비극이자 엄청난 사건으로 새삼스레 인식할 수 있었다. 본인은 멸종 위기에 놓인 종 - 즉 생멸(生滅)의 경계 위에서 위태롭게 살아가는 종들을 소재로 삼아 그 불안한 존재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곧 사라지려 하는 것들을 정교하게 재창조하는 본인 특유의 노동행위를 수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본인의 행위는 매우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 도구를 이용한 노동은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특징이며 결과적으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의 지위에, 동물을 인간을 위한 도구로서의 지위에 올려놓은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마치 전쟁피해자들을 위한 기념비를 제작하는 재료로서 폭탄을 선택한 것과 같이, 본인은 고도의 산업용품을 사용하여 멸종위기종의 위태로운 존재감을 표현했다. 인간 이외의 것들을 타자화(他者化), 도구화 하는 이러한 인간중심의 목적론이 지구상의 수많은 종들을 사라지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본인은 재료와 소재 사이의 위와 같은 역설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종의 구도자(求道者)로서 재료를 대하고자 하였다. 고도로 집약적인 노동과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 재현된 자연의 이미지는 역설을 풀어내기 위해 본인이 선택한 또 다른 역설인 셈이다.



(도판 1) Cubi XIX, David Smith, 1966

이와 같은 방법은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는 재료로 토템이라는 주제를 탐구했던 미국의 조각가 데이빗 스미스(David Smith)의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인간의 이성과 자연지배자적인 우월한 지위에 대해 회의적이고도 반성적인 그

의 시각은 위태롭게 서 있는 그의 유명한 Cubi 시리즈에서도 읽을 수 있다. 선과 기호로 이루어진 그의 설치작품은 공간 속에 녹아들어 주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꾀함과 동시에, 보는 이로 하여금 이성과 합리성 너머의 것을 추구하게끔 유도한다.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을 이용하여 표현해 내는 그의 작업은, 현대의 산업재료를 노동을 통해 자연과 공간에 녹아들게 하는 상호공존을 구현하고 있다.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의 구조를 형성하는 그의 작업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이는 가장 단순한 요소들이 조금씩 변화를 거치면서 만들어낸 결과이며 단위의 조합을 뛰어넘는 강력한 생명력을 갖게 된다. 본인은 선의 중첩과 빛의 반사 등 재료의 물리적 특성을 활용한 방법을 통해 재료가 갖고 있는 사회적 의미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자연과 현대 문명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도판 2) Cubi XI, David Smith, 1972

2) 유기적 관계

불교집안에서 태어나 성장해 오면서, 본인은 무의식적으로 인과관계와 윤회, 생명의 순환 등을 익숙하게 접하게 되었다. 이분법적인 사고방식보다는 수많은 원인이 모여 하나의 현상을 형성하는 인과론적 우주가 본인의 세계였던 것

이다. 이 세계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 여기에서의 관계란 기본적으로 상호성을 전제한다. “내가 나의 ‘너’에게 영향을 주듯이 나의 ‘너’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³⁾ 서로 간의 관계맺음. 바로 이 ‘관계를 맺는 일’로부터 인간의 삶은 시작되었고, 또 세계는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인간과 자연이 관계적으로 있다는 것은 서로의 ‘사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이’를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과 자연은 엄밀히 말하면 독자적인 영역과 범주를 갖는 두 주체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유기적인 관계망(네트워크) 속에서 새롭게 재정의하고, 지속가능한 상생적(相生的) 관계로 재정립하는 것은 현재의 생명이 직면한 다양한 국면의 위기에 새로운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본인이 멸종위기 동물을 작업의 소재로 삼은 이유 중 하나이며, 씨줄과 날줄로 천을 짜듯 수많은 선들의 교차를 통해 형상을 표현하고자 하는 작업 방식을 선택한 근거이기도 하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세계-내-존재(In-der-Welt-sein)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며, 여기에서의 세계관이란 어떤 하나의 입장을 취하는 것을 뜻한다.⁴⁾ 본인은 ‘사이’와 ‘씨줄과 날줄의 엮음을 통한 창조’라는 개념에 기인한 유기적 형태관을 표현하고자 선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본인의 관점에서 모든 것은 완전무결하지 않고 미세한 사이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사이은 곧 소통의 준비와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기계론적 세계관이 함의하는 논리적 폐쇄성이 가져온 많은 폐해들이 현대 사회 전반에 걸쳐 드러나는 현상을 비판하기 위함이며, 또한 인간이라는 하나의 종(種)이 자연을 대함에 있어 앞으로 갖추어야 할 대안적 자세를 제시하기 위

3) 마르틴 부버, 나와 너, (서울: 문예출판사, 1995), p.28-31

4) 마르틴 하이데거, 철학입문, (서울: 까치, 2006), p.235-333

함이기도 하다.

이렇게 선의 중첩으로 이루어진 금속성의 면은 독특한 밀도와 양감을 지니게 된다. 고도로 응집된 선의 구성은 오히려 그 내부가 비어있음을 암시하여 부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질량을 예상할 수 있게 하거나 무게를 전혀 어림잡을 수 없게끔 한다. 각각의 선들이 서로 인과관계를 이루어 하나의 현상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선의 중첩은 동양화의 그림에서 볼 수 있었던 중첩된 붓질로 표현한 산맥과 방법적인 맥락에서 유사한 점을 갖고 있다. 공간의 분할이라는 선의 본래의 역할과 더불어 중첩이라는 표현방법을 이용해 부피와 질량 또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인에게 재료로서의 스테인리스 선은 그 모두가 독립적 재료임과 동시에 입체라는 현상을 구성하는 종속적 요소이기도 하다. 더불어 하나하나가 독자적인 개체인 금속선들은 거시적으로는 하나의 단일면을 형성함과 동시에 그 각자가 반사되어 빛을 발하거나 짙은 음영을 드리우면서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드러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스테인리스 스틸 특유의 성질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결과이며, 공간 분할에 의한 빛의 반사를 가능하게 한 요소이기도 하다.

2. 작품의 조형적 특징

1) 중첩된 선들의 조형적 특성

예로부터 서구 사회는 ‘비어있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을 품고 있었고, 그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내포하게 되는 역설을 부정하였다. ‘무의 존재’라는 패러독스는 서구의 합리주의와는 상충되지 않았던 것이다. 17세기 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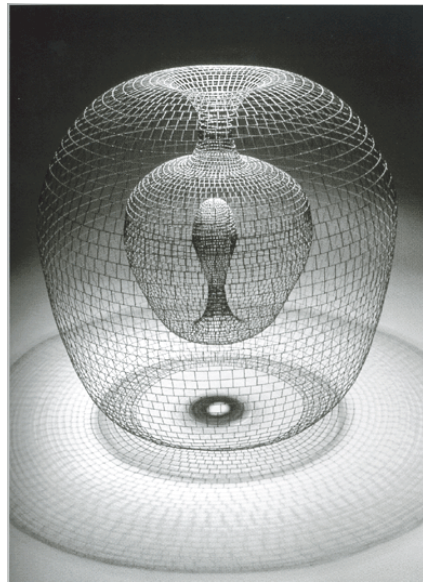
리첼리(Evangelista Torricelli, 1608-1647)에 이르러서야 진공의 개념을 인정하게 된 사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⁵⁾ 이러한 서구적 관점에서 볼 때 공간은 입체의 존재를 증명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인 셈이며, 반대로 입체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서구의 조각 작품들은 공간에 대한 철학적 연구나 심미적(審美的) 접근 보다는 그 공간을 점유하게 될 작품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해 왔다. 홀리오 곤잘레스가 용접을 작품제작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전 까지 거의 모든 서양의 입체 작품들이 불림과 매스로 이루어진 완결된 덩어리의 형태를 추구해 왔음은 이를 뒷받침한다. 그는 “새로운 방법으로 공간 속에 형태를 기획하고 고안하는 것, 그리고 마치 새롭게 얻은 재료를 다루듯이 이 공간을 사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구성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곤잘레스에 의한 금속의 직접 용접법이라는 기술적 혁신에는 투명하고 열려진 조각을 만들기 위한, 즉 곤잘레스의 말대로 공간 속에 드로잉을 하기위한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⁶⁾



(도판 3) 머리, 홀리오 곤잘레스, 1935

5) 나병철,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넘어서*, (소명출판, 서울, 1997), 67p

6) Rosalind Klauus, *현대조각의 흐름*, 윤난지 역 (서울: 예경, 1997), 161p



(도판 4, 5) 회선(左)과 공간의 시학(右), 존 배, 1997, 1994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예로부터 동양사회에서의 선은 입체처럼 실제로 공간을 점유하는 존재와 대등한 존재감을 형성해 왔다. 도화지에 사람의 실루엣을 그려 넣고 그 모양대로 오려내는 것에 비유하자면, 오려낸 사람 형상의 실루엣에 집중하는 서구 사회에 비해 그 실루엣이 오려져 나간 도화지까지 고려하는 것이 공간에 대한 동양의 접근자세인 것이다. 따라서 선은 안과 밖, 작품과 공간 등의 구분을 위한 배타적 요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재구성되고 재해석되는 능동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선의 이러한 평면적 속성을 입체적 해석을 통해 공간 속 드로잉 작업을 하는 조각가 존 배(1937-)는 한국에서 보낸 유년시절의 추억과 자연을 선으로 형상화 하는 명상적이고도 고도의 노동을 요구하는 작업을 하는 작가이다. 선의 기하학적 중첩을 통해 형성되는 그의 작품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의

이미지는 공간의 여백을 활용한 입체적 드로잉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는 반복적인 선의 중첩을 통해 다양한 표면을 형성하는 과정을 연구하였고, 중첩된 선이 지니는 명상적인 의미에 주목하였다. 본인은 동양화에서 볼 수 있는 세련된 선적 요소와 여백의 미라고 불리는 창의적인 공간의 활용 방법에 매료되었고, 특히 중첩을 통한 입체의 표현에 주목하였다.

2) 공간 분할에 의한 빛의 반사

공간을 분할하기 위한 선적 요소들의 집합이 면을 만들고 결국 3차원 입체를 형성하게 된 후, 본인은 스테인리스 선의 재료적 특성을 사용하여 공간을 재구성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거울처럼 반짝거리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선으로 사용한 이러한 제작방법은 어느 날 우연히 깨진 거울을 보며 떠올린 것이다. 주변을 반사하는 하나의 면이 수십 수백 조각으로 깨짐으로서 반사면 표면에 주위의 공간이 재구성 되듯이, 수십 수백 개의 선으로 구성된 면 또한 그와 같이 주변의 빛을 반사하여 공간을 적극적으로 분할 및 재구성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본인으로 하여금 선을 통한 공간 속의 드로잉이라는 일차적 행위를 넘어서, 빛의 반사를 이용한 상(像)의 재분할이라는 이차적 접근 방법을 가능케 했다.

하나의 면이 조각나 여러 개의 독립된 반사면을 구성하는 깨진 거울과 반대로 본인은 씨줄과 날줄의 엮임으로 형성된, 거대하지만 분할된 하나의 반사면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분할된 반사면은 주변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하지만 단일한 면의 반사면 보다 그 존재감이 약화된다. 쪼개진 면을 통해 반사된 기존의 상(象)들은 영긴 선들의 중첩과 재료 고유의 광택을 이용한 덕분에 자신의 고유한 물질성과 형태를 잃은 상태에서 주변을 시뮬레이션 하

면서 공간 속으로 숨어들기 때문이다. 주변의 공간을 완벽하게 반사하는 단일한 반사면이 그 완전무결한 폐쇄성으로 인해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에 반해, 중첩된 선들로 인해 조각이 난 반사면은 마치 성기고 통풍이 잘되는 창호지 문과 같이 주변의 공간과 소통을 하게 된다.

본인은 재료의 본래적 성질을 넘어 새로운 소통의 화합을 추구하고자 하였고, 세련되고 외경적(畏敬的)인 표현을 지양하고 다소 투박스러운 면들의 집합 상태를 선택하여 공간과의 소통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또한 선들이 이루는 하나의 면이 각각의 선의 개성을 유지하며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서 집단과 개인, 종(種)으로서의 인간의 위치 등을 예시하고자 노력하였다.

3) 불확실한 이미지

우리는 우리 주변의 가족에게서는 쉽게 책임을 느끼고 그들을 위해 때로는 나의 이기적 욕망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윤리적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나무에게, 아무 말 없이 흘러가는 물과 바람, 조용히 놓여 있는 흙에게 윤리적 책임을 느끼는 문제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인은 이에 대해 답하기 위해 타자의 사유를 통해 인간을 윤리적 주체로서 새롭게 해석한 레비나스의 철학에 주목하였다.⁷⁾ 레비나스의 타자 철학은 어떻게 이기적인 개인이 타인을 위한 책임의 존재로서 거듭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성찰이 담겨 있다.

레비나스는 자신의 철학을 통해 진정한 주체의 모습을 타인과의 윤리적 관계를 통해서 찾고자 한다.⁸⁾ 그가 발견한 자아 중심적 주체성과 구별되는 새로

7) Emmanuel Levinas, 시간과 타자, (서울: 문예출판사, 1996)

8) 레비나스는 서양 존재론을 타자를 동일자로 환원하는 전체성의 철학이라고 간주하였다. 고유성을 무시하고 타자를 전체성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서양 철학의 지배적인 사유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것

운 주체성은, ‘그것’을 ‘너’로, ‘타자’를 ‘타인’으로 인식하는 것을 통해 가능한 윤리적 주체성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타자와의 관계를 ‘얼굴의 현현’을 통해 접근한다. 즉, 아무런 자체적 목적 없이 그저 존재할 뿐인 ‘타자’는 내가 그의 얼굴과 마주하는 순간 그 얼굴이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는 ‘상처받을 가능성’을 바탕으로 윤리적 호소를 하는 ‘타인’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본인은 멸종의 위기에 놓인 인간 외의 종(種)에게 윤리적 책임을 느낄 수 있기 위해서는 마치 타인의 얼굴 또는 타인의 눈빛을 바라보듯, 세심한 마음으로 다른 존재들을 바라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작품 『FACE』 시리즈는 본인의 위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제작한 것으로써, 타인의 얼굴의 직접적 제작 방식을 지양하고 오히려 본인의 자화상 표면에 타인의 얼굴들이 비치는 형식을 채택하였다. 본인을 포함한 현대 사회의 인간은 모두 자연에 위해를 가한 공동정범이며, 호소할 길이 없는 멸종위기종의 상황에 윤리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얼굴을 통해 타자에게 도의적 연민과 관심을 갖게 되는 레비나스의 타자철학을 표현하기 위해 본인은 전신을 제작하던 동물 작품과는 달리 인체의 두상만을 제작하여 의미에 무게를 싣고자 하였다. 완성되지 못한 인간의 이미지는 멸종위기 종들 틈 사이에서 더욱 위화감을 내포하게 되며, 반사면에 투영되는 관람자들에 의해 점차 가해자로서의 형태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을 일종의 폭력으로 보았으며, 상대적 윤리관과 철학을 주장하였다. 그의 이러한 철학은 아우슈비츠에서 가족을 잃은 그의 과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신을 통해서 정의하고자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타자이기 때문이다. 타자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신이지, 그 역은 아니다. 내가 신에 대해서 무엇인가 말하고자 할 때, 그것은 언제나 인간들 간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신의 추상적인 관념은 인간적 상황을 명백하게 해줄 수 없는 관념이다. 반대로 인간적 상황이 신의 관념을 명백하게 해 준다.”

3. 작품 분석

[작품 1] lizard



[작품 1] lizard

[작품 1] lizard

크 기 : 125×58×18cm

재 료 : 스테인리스 스틸

제작년도 : 2011

제작방법 : 표범장지뱀의 습성과 본능에 관한자료를 조사하고 점토 작업 에 석고로 틀을 만든 후 그 위에 50스테인레스 환봉을 이용하여 뼈대를 만든 뒤 그 위에 너비 8mm 두께 0.3T 여러 길이의 스테인리스를 잘라 엮어서 알콘용 접 하였다.

[작품 1] 은 2급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표범장지뱀을 표현한 작품이다. 주로 사막의 언덕에 굴을 파고 생활하는 이 도마뱀의 학명은 *Eremias Argus*이며 특이하게도 장지뱀과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도마뱀과는 구별된다. 본인은 영국 BBC의 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이 생물의 위태로운 존재감을 표현하기 위해 바닥에 배치하는 구성 대신 벽에 가까스로 매달려 있는 형태를 선택하였다. 또한 이 종(種)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정밀한 묘사 대신 덩어리와 양감만으로 형태를 거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끔 하였으며, 눈도 생략하여 그들의 어두운 앞날을 암시하고자 하였다. 파충류 특유의 피부 질감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수백 개의 스테인리스 선들은 타 작품 과 달리 너비가 넓은 한 종류로 통일하였다.

[작품 2] polar bear



[작품 2] polar bear

[작품 2] polar bear

크 기 : 122×66×8cm

재 료 : 스테인리스 스틸

제작년도 : 2011

제작방법 : 북극곰의 습성과 본능에 관한자료를 조사하고 점토 작업에 석고로 틀을 만든 후 그 위에 5Ø스테인레스 환봉을 이용하여 뼈대를 만든 뒤 그 위에 너비 5mm,8mm,10mm 두께 0.3T 여러 길이의 스테인리스를 잘라 엮어서 알콘용접 하였다.

[작품 2] 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북극곰을 제작한 것이다. 북극곰은 그 친근한 이미지와는 달리 VU, 즉 멸종 취약종으로 분류되며 이는 ‘야생에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인은 앞서 도마뱀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작품 구성을 지양하고 유빙조각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북극곰을 제작하여 위기에 놓인 한 종(種)의 재현을 의도했다. 아울러 처연하게 관객을 바라보고 있는 북극곰의 모습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야생 동물의 상황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인은 환조가 아닌 부조 형식을 차용하여 한 장의 극적인 다큐멘터리 사진과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키려 의도하였다.

[작품 3] deer



[작품 3] deer

[작품 3] deer

크 기 : 90×30×105cm

재 료 : 스테인리스 스틸, 혼합재료

제작년도 : 2011

제작방법 : 시카사슴의 습성과 본능에 관한자료를 조사하고 점토 작업에 석고로 틀을 만든 후 그 위에 5Ø스테인레스 환봉을 이용하여 뼈대를 만든 뒤 그 위에 너비 6mm,9mm 두께 0.3T 여러 길이의 스테인리스를 잘라 엮어서 알곤 용접 하였다.

[작품 3] deer는 뒤이은 연작 [sika deer]의 암컷을 제작한 것으로 ‘시카’는 일본어로 사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종은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지는 않으나, 사냥을 위해 북아메리카와 유럽 등지에 소개되었으며 지금도 무분별한 수렵으로 고통 받고 있다. 본인은 인위적으로 방목되고 잔인하게 사냥당하는 시카사슴의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사각형 형태의 협소한 받침대를 제작하고 그 위를 잔디로 덮었다. 인위적 받침대와 인공적으로 조성된 협소한 초원 위에 서 있는 시카사슴의 눈은 북극곰과 마찬가지로 검고 애처로운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작품 4] sika deer



[작품 4] sika deer

[작품 4] sika deer

크 기 : 200×140×270cm

재 료 : 스테인리스 스틸, 혼합재료

제작년도 : 2011

제작방법 : 시카사슴의 습성과 본능에 관한자료를 조사하고 5Ø스테인레스 환봉을 이용하여 뼈대를 만든 뒤 그 위에 너비 8mm,10mm,15mm 두께 0.3T 여러 길이의 스테인리스를 잘라 엮어서 알콘용접 하였다.

[작품 4] 는 시카사슴의 수컷을 제작, 표현한 것으로 암컷과는 달리 위풍당당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 동세를 통해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들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협소한 사각의 초원은 수사슴의 동세에 맞춰 울퉁불퉁한 인위적 잔디밭으로 조성 되었으며, 다소 이질감이 느껴지는 재료로 제작한 빨은 약용 목적으로 사육되는 시카사슴의 현실을 표현하고 있다. 빨과 사각 모양의 받침대는 모두 반(反)자연적 요소로서 본인의 의도 하에 첨가된 폐쇄적 요소이며 또한 선으로 이루어진 몸통과의 대조를 통해 문명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자연을 형상화하기 위함이다.

[작품 5] face I



[작품 5] face I

[작품 5] face I

크 기 : 145×114×10cm

재 료 : 스테인리스 스틸, 철수세미

제작년도 : 2011

제작방법 : 5Ø스테인레스 환봉을 이용하여 뼈대를 만든 뒤 그 위에 너비 5mm 두께 0.3T 여러 길이의 스테인리스를 잘라 엮어서 알콘용접 하였다. 머리카락은 철수세미를 이용하여 펴서 서로 엮이는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작품 5] 는 일련의 동물 작업과는 구별되는 자화상 작업의 첫 작품이다. 본인이 세상과 본인의 관계를 ‘유기적-인과론적 네트워크’로 인지하기 전의 폐쇄적 성향을 표현한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공격적 시선은 자연과 교감하기 보다는 자연을 정복하고 변화시키려는 인간 특유의 지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머리카락 만이 길게 자라는 인간 고유의 독자적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스텐수세미를 이용하여 과장된 머리를 연출하였다. 주변의 것들을 반사시키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안구는 타자(他者)를 이해하기 보다는 경계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은유한다. 결국 자화상 작업들은 현대인의 폐쇄적 성향을 일종의 종(種)으로 간주하여 연구, 관찰한 결과이다.

[작품 6] face II



[작품 6] face II

[작품 6] face II

크 기 : 150×128×15cm

재 료 : 스테인리스 스틸

제작년도 : 2011

제작방법 : 5Ø스테인레스 환봉을 이용하여 뼈대를 만든 뒤 그 위에 너비 10mm 두께 0.3T 여러 길이의 스테인리스를 잘라 엮어서 알콘용접 하였다.

[작품 6] 는 앞서 설명한 자화상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앞선 자화상과는 많은 의미에서 구별되어 질 수 있는데, 우선 공격적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faceI]과 달리 이 작품 속의 공허한 텅 빈 눈은 지배자, 혹은 정복자의 지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던 인간상이 아닌 공허하고 슬픈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동물 작업에서 나타난 멸종위기종들의 위태롭고 애처로운 상황을 표현했던 눈을 새로운 방법으로 제작한 것이며, 인간 역시 어찌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하나의 종일 수도 있다는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또한 전작의 과도한 두발표현이 풍자를 통한 비판적 요소로서 작용하는 것에 비해 본 작에서는 과감한 생략을 통해 인간적 이성에 대한 공허함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Ⅲ. 결 론

본 연구자에게 공간이란 단순히 작품이 위치할 장소를 지칭함을 넘어서 그 작품의 내러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심지어 완성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요소이다. 그리고 공간-작품 상호 간의 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열린’ 공간을 작품 안에서 표현하고자 선적인 활용과 반사면의 분할-재구성이라는 방법을 연구, 모색해 보았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전통적 조각재료와 제작방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짐을 느낌과 동시에, 입체 작품이 갖고 있는 폐쇄적 성향을 ‘공간 속 드로잉’과 ‘공간의 분할과 재조합’을 이용하여 상쇄하고자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스테인리스 스틸을 수목화의 선처럼 사용한 본 논문의 연구 작품은 본인에게 조각의 새로운 측면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멸종의 위기에 놓인 동물들의 표현을 통하여 그들의 불안한 존재감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표출하려 노력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난 현대적 재료와 자연 소재 상호 간의 갈등과 괴리를 좁히기 위하여 선의 중첩과 반사면을 통한 소통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작업 과정은 선을 통한 공간의 드로잉이라는 내용적 의미와 함께, 독특한 입체감을 형성하게 되는 방법적인 시도이기도 하였다. 더불어 씨줄과 날줄처럼 뻗뻗이 엮힌 선들의 집합이 형성한 하나의 면은 단일한 반사면을 형성하지 않고 각 선들의 개성을 살린 독특한 수 백, 수 천 개의 반사면을 구성하여 상호 인과적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인간-인간, 혹은 인간-자연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인은 이 연구 작품을 통해 천을 직조하듯 엮히고 설킨 형태의 자연을 재현함으로써 현재의 우

리가 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마무리 지으며 생명을 표현함에 있어서 멸종 동물 외의 다양한 소재들에 미처 주목하지 못한 점은 본인에게도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또한 선의 중첩 과정에서 나타난 반복적인 패턴 역시 개선해야 할 연구과제이다. 본인은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방법과 기법들을 모색하고 연구해 나가며 작업 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Werner Jung, 미메시스에서 시뮬라시옹까지, 장희창 역 (부산: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6),

Emmanuel Levinas, 시간과 타자, 강영안 역(서울: 문예출판사, 1996)

Rosalind Klaaus, 현대조각의 흐름, 윤난지 역 (서울: 예경, 1997)

Martin Buber, 나와 너, 표재명 역 (서울: 문예출판사, 1995)

Martin Heidegger, 철학입문, 이기상, 김재철 역 (서울: 까치, 2006)

이영철, 현대미술과 모더니즘론, (서울: 시각과 언어, 1995)

나병철,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넘어서, (소명출판, 서울, 1997)

ABSTRACT

A study of shape formed by overlapped lines

- on the basis of my work -

Kim, dohoon
Dep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this thesis, various animals in danger of extinction are formulated with contemporary materials in order to express their endangered status and reproduce the beauty of nature with special characteristics of stainless steel. At the same time, researches to overcome the discrepancy generated by contemporary materials and the endangered species are pursued simultaneously which represents the conflict raised between the civilization and primitive lives. A solution to such contradiction is proposed paradoxically by selecting natural subject and reproducing it with contemporary materials.

A thin piece of stainless were used to formulate the art works as if they were drawn in three dimensional space and reflecting surface of stainless are expressed in various ways through segments created by cross sections. Also, unique volume effect is provided with a woven

metallic surface rather than ordinary metal works which usually yields sense of weight.

The thesis is organized in three sections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as stated above. In the introduction, motives on selecting endangered species as the subject are explained and the purpose of research with methodology is stated. In the second section, a detailed description of research methodology on mutual existence of volume and space is proposed. Also detailed analysis on the art works is depicted with the purpose and methods of production to support the research topic. Finally in the conclusion, summary on thesis is stated with ways to improve with future works.